



광주FC 떠나는 기영욱 단장

“승격의 꿈 이뤘으니 광주서 역할은 여기까지 성용이한테 가 손녀도 보고 자유롭게 살고파”

‘승격’의 꿈을 이룬 기영욱 단장이 광주FC를 떠난다.

2019시즌 광주의 K리그2 우승을 이끈 기영욱 단장이 4일 “승격의 꿈을 이뤘다. 최대한 빨리 승격하겠다는 목표를 이뤘다. 여기서 내 역할은 끝나는 것 같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기성용(뉴캐슬)의 아버지로도 유명한 기 단장에게 광주는 또 다른 아들이었다.

광주축구협회장으로 광주 창단에 기여했고, 2015년 4월 6일 단장으로 취임해 광주와 함께 걸었다. 특히 그는 “광주 축구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며 무보수로 단장을 맡았다. 대신 유소년 축구 지원을 부탁하며 고향 광주의 장기적인 축구 기틀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또 그는 지도자 출신 단장으로 열악한 시민구단의 빈틈을 채우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 좋은 선수들을 영입해 전력 최대화를 이뤘고, 좋은 조건에 선수들을 이적시키면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도 했다. 올 시즌 ‘철벽 수비’로 우승에 공을 세운 아솔마도프

광주축구협회장 때 광주FC 창단 기여
오심판정 항의 ... 비디오 판독 도입도
광주는 쪽 1군에 잔류해야할 팀
유스팀부터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도 기 단장이 꼭 집어, 직접 영입한 자이다.

부임 첫째 팀 창단 최다승(10승)을 지켜본 그는 2016년 ‘3관왕’ 정조국의 활약에 웃었다. 지난해에도 나상호의 ‘3관왕’ 등극을 지켜본 기 단장은 올 시즌에는 ‘우승 단장’으로 많은 축하를 받았다.

물론 광주에서 좋은 기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7년 3월 19일 서울 원정기간 끝난 뒤 기 단장은 작심 발언을 한 적 있다.

상대의 크로스가 수비수 박동진의 등에 맞았지만 페널티킥이 선언됐고, 1-0으로 앞서던 광주는 동점

을 허용했다. 이후 경기는 1-2, 광주의 역전패로 끝났다. 기 단장은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심판 판정 평가 회의 결과 ‘주심의 무기한 배정 정지와 2부심 퇴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기 단장은 “인터뷰에서 경기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한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연맹 규정에 따라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대어’를 낚을 수 있었던 광주는 오심에 초반 분위기를 타는 데 실패했고, 이해 승점 5점 차 12위로 강등됐다.

기 단장은 “앞서 두 번이나 같은 팀 경기에서 오심이 나왔고, 나중에 오심 인정을 했다. 이미 결과가 나온 뒤에 무슨 의미냐”면서 당시를 떠올렸다.

징계를 각오했던 기 단장의 목소리는 기폭제가 됐고, 이해 연맹은 예정보다 이른 7월 1일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민구단’의 설움은 내부에도 있었다. 광주는 매

년 예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기 단장은 시민들에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찾아다니며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왔다.

기 단장은 “(사퇴 결정을 하고)잠이 잘 온다. 그동안 운동 못 나갔는데 축구 모임 나가서 공도 좀 차고 하겠다”며 웃었지만 ‘예산’ 이야기에선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선수들 연봉 협상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우승을 이룬 박진섭 감독도 대우를 해줘야 한다. 프론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걱정했다.

무거웠던 옷을 벗고 보통의 축구 선배로 그라운드를 내려다보게 된 기 단장은 당분간 ‘가족’에 집중할 생각이다.

기 단장은 “성용이한테 가볼 생각이요, 제일 보고 싶은 게 손녀냐(웃음). 지금까지 못했던 것 자유롭게 하고 싶다”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뒤도 돌아보고 지내겠다. 홀가분한데 정원주 대표이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 광주가 쪽 1군에 잔류해서 우승도 하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도 나갈 수 있는 팀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표이사님, 사장님 등 윗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한다. 프런트도 열린 사고로 팀을 도와야 한다. 1년이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하는 팀이다.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유스팀부터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며 “시민 축구단으로 역사는 짧지만 많은 걸 했고 올해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렸다. 앞으로도 희망을 심어줬으면 한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회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부 리그 복귀 광주FC, 운영비 되레 줄어

광주시, 60억 약속 → 50억 지원

1부 리그로 복귀한 광주FC의 운영비가 되레 줄어들게 됐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내년도 광주FC 운영 지원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운영비로 5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올렸다. 광주시는 2011년 창단한 광주FC에 매년 6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50억원만 편성했다. 나머지는 내년 추경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최근 광주FC 지원 근거인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2022년까지 매년 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부 리그의 운영비가 최소 100억원 넘게 들어가는 만큼 운영비 지원 확대가 아닌 동결(축

소)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앞서 광주시는 1부 리그 수준에 맞는 지원을 약속하며 당초 내년부터 80억원으로 운영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창단 2년 만인 2012년 2부 리그로 강등된 광주FC는 선수단의 고군분투로 2015년 1부 승격을 이뤄냈지만, 선수를 팔아 근근이 버티다가 2017년 다시 2부로 추락하는 아픔을 겪었다.

운영비가 없어 선수를 팔고, 선수가 없으니 성적이 추락하고, 1부 리그로 승격하지 못하니 후원이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1부 리그 승격에 맞춰 운영비를 더 늘려야 하는데, 시에서 오히려 줄어든 예산안을 들고 왔다”며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마무리 투수 문경찬 ‘기량발전상’

KIA타이거즈의 마무리 투수 문경찬(사진)이 ‘기량발전상’을 받았다.

문경찬이 4일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시상식에서 ‘기량발전상’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상금 1000만원이 걸린 대상을 비롯해 총 17개 부문 대상이 이뤄졌다.

시즌 중반 ‘임시 마무리’를 맡은 문경찬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세이브 행진을 펼치면서 팀의 확실한 마무리로 입지를 굳혔다.

문경찬은 올 시즌 54경기에 나와 1.31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2패 24세이브를 기록했다.

한편 극적인 뒤집기로 통합 우승을 이룬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이 대상 주인공이 되어 1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최고 투수상과 타자상은 각각 김광현(SK), 양의지(NC)에게 돌아갔다. 이재훈(SK)은 최고구원투



수, 정우영(LG)은 최고 신인으로 선정됐다.

김경문 국가대표 감독과 ‘괴물’ 류현진은 각각 공로상과 특별상을 받았다. 투수 배영수도 특별상 수상자로 호명됐다. 배영수는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하는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책임진 뒤 은퇴를 선언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강인이 지난달 28일 열린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5차전 홈 경기 후 주저앉아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후반 33분 교체 출전에 20여분을 뒀던 이강인은 왼쪽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1달 이상의 결장이 예고됐다.

/연합뉴스

부상 이강인 한 달 결장 ... “라리가 무슨 재미로 보나!”

챔스 첼시전서 왼쪽 허벅지 부상 재활 후 그라운드 복귀 시점 관심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활동 중인 이강인(18·발렌시아)의 그라운드 복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 2019-202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H조 5차전 홈 경기에서 첼시를 상대로 후반 33분에 교체 출전했다.

이날 경기가 끝나자 이강인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왼쪽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경기장을 떠나면서도 눈에 띄게 절뚝거리며 가다사다를 반복하던 그는 결국 지난 30일 발렌시아의 공식 발표와 함께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발렌시아 측은 허벅지 부상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1달에서 1달 반에 걸친 재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이강인은 성인으로서 프로축구에 데뷔한 후 처음으로 부상으로 결장하게 됐다.

이강인이 최근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줬던 터라 안타까움이 크다.

2018-2019 시즌부터 발렌시아 A팀으로서 번호를 배정받은 그는 지난 9월 라리가 데뷔골을 넣었다. 발렌시아 소속으로 프리메라리가에서 골을 넣은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자 최연소 외국인 득점자가 된 순간이었다.

지난 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어워드) 올해의 아시아 국제선수 부문에서 ‘올해의 유스 플레이어’로 이강인을 선정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유럽의 1부리그 클럽에서 뛰는 21세 이하 선수 중 한 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골든 보이 어워드’ 후보 20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또 올해 ‘21세 이하 선수들의 발롱도르’라 불리는 코파 트로피 최종후보 1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퍼마크트는 최근 이강인의 추정 이적료를 2000만 유로(263억원)로 올렸다. 만 19세 이하 선수 중에서 5위, 19세 이하 아시아 선수로서는 1위다. 이강인의 추정 이적료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100만유로(13억원)에 불과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도 ‘물 오른’ 선수였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해 6번(2골 4도움)의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활약했다.

대회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달성했고, 이강인은 MVP로 선정돼 ‘골든볼’을 받았다. 16년 만에 처음 나온 아시아 출신 골든볼 수상자이자 FIFA 주관 단일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올린 최다 도움 기록도 경신했다.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이강인에게 이번 부상은 악재다. 이강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겠지 주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우즈, 36억 제안에 “NO”

사우디 유러피언대회 초청 거절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사진)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유러피언투어 대회에 막대한 초청료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우즈가 제안받은 초청료는 300만달러(약 35억7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회는 2020년 1월 개막하는 유러피언투어 대회로 총상금 350만달러가 걸려 있다. 사우디 인터내셔널은 올해 초에 1회 대회가 열렸으나 2018년 방정부 성장 언론인 자살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사우디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반인권 국가’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에 선수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우즈는 지난해에도 초청료 300만달러 제의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바하마에서 개막하는 이벤트 대회 히어로 월드 챔피언십 출전을 앞둔 우즈는 사우디 인터내셔널 관련 질문을 받고 “너무 멀어서 가고 싶지 않았을 뿐”이라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골프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사우디 인터내셔널에는 지난해 우승자 더스틴 존슨을 비롯해 브룩스 켈카(이상 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헨리크 스텐손(스웨덴), 세인 라우리(아일랜드) 등이 출전한다.

/연합뉴스